창간정신

- 1. 영생대도의 실천
- 3. 영생문화의 창달

隔週刊 제 723 호

2. 영생학의 보급

1985년 1월 18일 창간

승리신문

자유율법

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 라.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 이겨라.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. 인 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.

2016년 11월 15일 화요일 The Seungni Shinmun

최태민이 세웠다는

'영세교', 영생교와는 전혀 다르다

요즘 핫이슈인 '비선(秘線) 실세'최 순실씨의 국정 개입 사태와 관련해 10 월 26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 장이 "지금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 태민・최순실 두 사람의 사교(邪敎・사 이비종교)에 씌어 이런 일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"고 말한 바 있다. 그런데 이를 국내 유명일간지에서 보충하여 언 급하면서, 최태민의 〈영세교〉를 조희성 님의 〈영생교〉로 오인(誤認)한 기사를 썼다. 이로 인하여 〈영생교 승리제단〉 인 터넷 포털 검색이 폭주하여 트랙픽 초 과로 승리제단 홈페이지가 몇 차례 열 리지 않았다. 사실 영세교는 교리조차 없고, 영생은 전혀 주장하지 않았는데 영생교 승리제단으로 오인하였으니 참 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.

승리제단 홍보부에서는 오보가 있는 당일 즉각 각 신문사의 해당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. 그 리하여 인터넷에 올린 기사는 수정되었 다. 이튿날 JTBC 뉴스룸에서 "영생교는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1981년에 만든 거 고요, 최태민 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." 라고 보도하였다.

예수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놋뱀과 상관없어

2016년 병신년이 저물어 가는 이 마당 에 하필이면 〈영생교〉가 뜬금없이 세간 에 회자되면서, "사람은 원래 신이었고 현재의 사람이 원래의 신체로 돌아가 신이 되면 '불사'의 영생체가 된다." 또 한, "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늘나 라에 들 수 있고, 구원받을 수 있다."며 "본래 신으로 태어난 인간이 살아생전 에 신체를 회복해 '하나님'이 되어야 한다."라는 인간구원론의 참진리 말씀 이 매스컴을 타면서 대한민국 백성들에 게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다.

이쯤해서 병신년과 관련된 격암유록의 도부신인(桃符神人)편을 살펴보자.

十勝道靈出世하り 天下是非紛紛이라

승리자 하나님 정도령이 세상에 알려 지니 천하가 시시비비로 어수선하다.

克己魔로 十勝變이 不俱者年赤猴 로다

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김으로써 이기 신 하나님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불 구자(不俱者)년 즉 병신(病身)년, 다시 말해서 적후(赤猴) 즉 붉은 원숭이해 (丙申年: 2016년)에 널리 알려진다.

儒佛仙合 一氣再生 (중략) 柿木出聖 東西教主 假牧從民 不免羞恥



유교, 불교, 기독교를 하나로 합치고 감람나무로 나온 성인(聖人)이 동서양 의 교주시니 가짜 목자(가짜예수 또는 거짓선지자)를 따르는 백성은 그 수치 를 못 면하리라.

영생이 이루어져야 종교이다. 사람이 죽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니다. 승리제 단이 영생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명백 한 증거는, 영생하는 비결을 구세주 조 희성님이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감로이슬의 은 혜를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다. 놀라 운 사실이지만 조희성님의 얼굴(相好) 을 바라보면 늙지도 아니하고 죽지 않 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. 이는 "모세 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 라"라는 성경 민수기 21장 9절에 감춰 놓은 구원의 방식을 구세주 조희성님이 찾아냈기 때문이다.

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"모세가 광야 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 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 게 하리니"라는 말씀이 있는데, 기독교 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두고 '인자가 들린 것'으로 해석한다. 그러나 그리스도의 예표가 놋뱀인데, 예표의 실체로서 예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는 사 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. 영국에서 〈성 혈과 성배〉라는 책이 나오자 BBC기자를 상대로 기독교인과 천주교인의 사실 확 인 소송이 영국 법정에 제소되어 재판 까지 하게 되었는데, 주심판사는 "예수

성아! 나를 앙망하라(바라봐라). 그리하 면 구원을 얻으리라. 나는 하나님이라.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."라는 말씀과 민 수기 21장 9절에 '놋뱀' 과 짝을 맞추면, 하나님께서 놋뱀과 같이 죄인의 모습으 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다. 분명히 놋뱀은 주물로 만든 뱀 모양의 청동형상이다.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 천년 전(前)의 예수형상은 오늘날에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, 믿는 자들이 예 수의 실제 모습을 놋뱀처럼 바라볼 수 없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(요 3:14). 그래서 예수의 형상 대신에 십자 가로 억지로 꿰맞추지만, 분명히 십자 가는 장대의 상징이지 놋뱀의 상징이 될 수 없다.

이사야 45장 22절에, "땅끝의 모든 백

구세주 존영 바라보면 영생 체질

하나님께서는 창세 이래 6천년 만에 그리스도의 예표가 놋뱀이었던 것처럼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얼굴 형상을 갖추는 데 성공하신 것이다. 그래서 이긴자 조희 성님의 존영사진만 바라 보아도 암과 백혈병 등 불치병이 한두 달도 못되어 치유되는가 하면 또한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주님을 사모하면 죄를 지을 마 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. 실제로 70 세를 훌쩍 넘은 기독교의 원로목사님은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조희성님의 존영 사진을 바라보면서 일문일답하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함으로써 늘 즐겁고 영 생단계로 젊어져가고 있는데, 이에 반 해 바울에 의해 억지춘향식으로 그리스 도의 모형이 된 예수를 붙잡고 있는 기 독교의 수많은 원로목사들이 늙고 병들 어가는 죗값을 치르고 하나 둘씩 결국 땅의 옥(獄)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 너 무나 불쌍한 것이다.

억조창생이 이 날에 구세주가 '오실 까! 오실까!' 하다가 다 죽어갔는데, 막 상 당대에 영생을 주는 참구세주가 눈 앞에 출현하셨건만 알아보지 못하고 죽 는다면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? 모세 당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장 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고 불뱀의 독 소가 해독되어 살게 되었듯이, 오늘날 온 세상 만민들은 자신 속에 마귀 영의 선악과 독소를 제거해주는 구세주 조희 성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속히 구원함을 얻어야 하겠다.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놋뱀 사건처럼 구세주 조희성님의 존영 은 영생을 주시는 이기신 하나님의 모 습이다.*

박태선 기자

금주의 말씀 요절

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(94)

"꾸준하게 도전하고 또 도전을 해야"

여러분들이 마귀라고 하는 것을 소 홀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귀가 곧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다. 그런고로 나라고 하는 영이 마귀요, 나라고 하는 의식이 지배를 하는 고로 최고의 강자인 것이다.

최고의 강자인 고로 나라고 하는 것 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수 백 번, 수 천 번 도전을 계속 하여야 한다. 도전 할 때마다 백전백패를 하는 가운데서 도 낙심하지 아니하고, 포기하지 아니

하고, 계속해서 도전을 할 때 마지막 에 완전히 이기는 비결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.

세상에서도 싸움을 할 때 한 번에 센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. 한 번 졌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하는 지는 실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. 꾸준 하게 도전을 하고 또 다시 도전을 해 야 마지막에 완전히 이길 수가 있는



천년대계(千年大計)

무릇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먼저 계획을 튼실하게 짜야 한다. 하룻밤 사이에 바꿔질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면 그야말로 날림이다. 계획이 잘 되 어 있어야 실패를 줄일 수 있게 된

승리제단의 미래를 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. 5년 뒤의 일을 내다보고 짜면 5년짜리 계획이 될 것이요, 10 년 후면 10년 계획, 100년이면 100년 계획, 1000년이면 1000년 계획이 될 것이다.

구세주께서는 이 역사를 이루는 데 천 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다. 천 살 이 넘어야 신(하나님)으로 변화가 된 다는 것이다. 그러므로 천 년 동안 살아야 이 역사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지 그 안에 죽는다면 말짱 도루 묵이다. 대갑자년 1984년이 인류 역 사 6000년이 되는 기점이므로 2984년 이 되어야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.

인간의 몸을 가지고 과연 천 년 동 안 산다는 게 가능할까? 과학적으로 인간의 수명은 고작 120세에 불과하

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 다. 하지만 구세주께서는 당신이 건 재하고, 이슬성신을 받으면 천 년 동 안 사는 것이 문제없다고 말씀하신 다. 이슬성신은 세상의 물질이 아닌 승리한 하나님의 영이므로 죽을 세포 를 다시 살리며, 병든 몸을 회복시키 는 권능의 물질이기 때문이다.

문제는 이슬성신을 받기가 쉽지 않 다는 데에 있다. 이슬성신을 받으려 면 고도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 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 다. 구세주께서는 구원 얻을 최소한 의 조건은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. 초 초로 바라봐지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 관이 없고, 하나님과는 인연이 없는 것이다. 아직까지 주님이 초초로 바 라봐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라 도 새 출발하는 심정으로 다시 초초 로 주님을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는 수도생활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. 구세주를 만나서 구원을 못 받는다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셨다. 다시 한 번 분발하자.*

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

성금계좌 : 우체국 103747 - 02 - 134421 예금주 : 이승우

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

본부제단 10월 성적 발표

지난달에 이어 3지역 또 1등



정은경 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

2016년 11월 8일 화요일, 본부제단의 2016 년 10월 활동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.

2016년 10월의 성적은 헌금 총액이 가 장 많은 3지역이 지난달에 이어 지역 1등 을 차지하였고 2지역이 근소한 차이로 2 등, 4지역이 3등을 차지하였다. 개인성적 으로는 감사헌금의 순위에 의하여 이귀 윤 권사가 1위, 안경미 권사가 2위를 차 지하였고 승리신문 회원 확보와 인도 점 수의 영향으로 안명숙 승사가 개인 3등 을 차지하였다.

구역성적은 역시 감사헌금의 영향으로 이귀윤 권사가 속한 23구역이 1등, 윤금 옥 승사가 속한 58구역이 2등, 김순자 권

사가 속한 13구역이 3등을 차지하였다. 윤봉수 회장은 "이 역사는 인간의 역사 가 아니다. 제단 재정 현황을 봐도 그렇 다. 도저히 굴러갈 수 없을 것 같아도 고 비를 넘어간다.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시 고 계시는 것이다.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 다. 변화를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."고 당부하였다.

·지역1등: 3지역(지역장: 김갑용, 지회장: 정은경) 지역 2등: 2지역(지역장: 강중태, 지회장: 김혜선) 지역 3등: 4지역(지역장: 박명하,

· 구역 1등: 23구역(구역장: 김용덕) 구역 2등: 58구역(구역장: 윤금옥) 구역 3등: 13구역(구역장: 이교순)

지회장: 이영애)

· 개인 1등: 이귀윤 권사

개인 2등: 안경미 권사 개인 3등: 안명숙 승사*

그리스도의 예표인 놋뱀

의 후손들이 증인으로 나왔으며 그들이

가져온 족보책이 소명자료로써 너무나

확실하기에, 예수는 십자가를 지지 않

고 프랑스로 망명하여 84세까지 살다가

이렇게 20세기 후반에 예수는 조작된

구세주라는 것이 영국법정에 의해서 판

정받게 되자, 재판과정을 지켜본 영국

의 기독교인들 중 약 80%가 회교 등 타

종교로 개종을 하였으며 그 여파로 유

럽일대의 교회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된

것이다. 그런데 유독 한국만 거꾸로 기

독교가 성행하는 이유는, 진짜 구세주

조희성님을 알아보지 못하게끔 온 세상

마귀들이 한국으로 집결한 탓도 있지만

또한 선진문화의 유입을 거부하는 쇄국

적인 정통과 한국인의 봉건적인 사고방

승리절 2016.10.15 김갑용 승사 촬영

식도 크게 작용한 탓도 있다.

죽었다."고 판결한 바 있다.



승리절 2016.10.15 김갑용 승사 촬영

누구든지 내 몸처럼

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敎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

體 一人出 된 眞人의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

>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(호세아 14:5)이라 빛의 형상(요한복음 1장)으로 나 타난다.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

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 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 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.

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. 대신 죄가 없는 카 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.



본지 지난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://www.victor.or.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.